



자연과 아이들이
함께 빛어내는 초록빛 일상



현대 사회의 대표적 기술로
AI와 로봇을 쫓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이어져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혁명적 발달에 이어
AI와 로봇은 이제 그 변화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태풍으로 다가왔다.

미래세대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 그냥 수용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일을 앞서 공리하고 경험하는
경남의 선도학교 여덟 곳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기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학교에서부터 AI의 결과물을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비판적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
기술을 통해 생명의 온기를 느낄 줄 알아야 하고,
오답조차 배움의 과정으로 즐기는 긍정적 체험을 쌓아 가야 한다.

기술을 도구 삼아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배움의 본질을 고민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남의 미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적 자립을
돕고 삶을 더욱 단단하게 지지할 것이다.

목차

2026년 여름 | 115호

발행일

2026년 6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055-278-1788)

편집인

홍보담당관 박한규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최연희

주무관 김아경·김문명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큰그림

특집기획

04 지금, 경남교육
인공지능(AI) 시대,
경남교육의 해답은 '사람'

08 경남 AI·디지털 교육
인공지능(AI) 교육 관련 학교

미래를 꿈꾸다

12 요즘, 아이
나를 찾는 곳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16 요즘, 교육
칠판을 벗어난 수학 놀이터
김해 용산초 최일석 교사

20 요즘, 학교
작지만 '맛있는' 학교의 반란
창녕 이방초등학교

24 즐겁지 아니한家
학교를 따라 삶을 옮긴 두 가족

가치를 만나다

28 진로진학 나침판
수시·학생부
종합전형 톺아보기

30 아이 안전
비 오는 날 학교 앞, 더 천천히

34 경남교육 체험기관
함께 짓는 밥, 함께 크는 아이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재미를 더하다

38 PLAY 경남
경남의 신상 문화 공간 산책

40 경남교육 기네스
경남 최초의 학교와 유치원

42 힐링필링 교육명소
동백의 붉은 마음이 호국의 다짐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다시 찾는 거제

정보를 즐기다

46 우리말 톡톡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의 무게

48 마음상담소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과
부모의 역할

50 경남교육 캘린더



인공지능(AI)시대 경남교육의 해답은 ‘사람’

인공지능(AI)이 교실의 풍경까지 빠르게 바꾸고 있는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은 기술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해답을 다름 아닌 ‘사람’에서 찾았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한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경남교육, 기술을 넘어 ‘인간다움’을 그린다

※ 경상남도교육청, 사람을 위한
‘2026. AI·디지털 교육 종합 추진 계획’ 발표

Q AI·디지털 교육이란?

AI·디지털 교육은 AI 기술을 따뜻한 배움의 도구로 삼아 학생이 인간다움의 가치를 품고 책임 있는
「모두가 주인공, AI·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나며, 창의적 협력을 통해 단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육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이번 계획은 ‘학습자 주체성’을 최우선으로 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경남교육은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다움의 가치를 품은 배움의 도구’로 정의하고,
아이들이 기술을 주도하며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I 활용 교육 도입에 대한 경남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

기 간 2025. 12. 17. (수) ~ 12. 24. (수)

대 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원

응답자수 총 1,463명

연구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방 법 AI활용에서 요구되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질문(중복 허용)

응답결과

AI 활용 교육적 가치	1. 학습자 주체성 및 자율성		2. 지속 가능한 미래		3.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4. 인간 중심성 (관계, 정서)		5. 공정성과 포용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11	48.53	401	27.37	395	26.96	300	20.48	117	7.99	1,463	100

※ 단위: 빈도(명), 비율(%)

요구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AI 윤리 기반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경상남도교육청은 '변화하는 시대에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 성찰적 실천가로서의 교사, 인간 중심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3가지 핵심 가치를 실천합니다.

주인으로서의 나

인간 존엄의 가치를 품고
AI 윤리를 실천하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교육



인재로 성장하는 너

저마다의 속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공존하는 우리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AI·디지털 시민 교육



모두가 주인공, AI·디지털 시민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

핵심역량



주인으로서의 나 언어소양

AI·디지털 협력적 소통 역량
AI·디지털 윤리 역량



인재로 성장하는 너 수리소양

AI·디지털 자기주도 역량
AI·디지털 시민역량



공존하는 우리 디지털소양

AI·디지털 문제해결 역량
AI·활용 역량

4대 추진 전략



인간다움을 품은
AI 책임 교육



성장으로 이끄는
AI·디지털 수업·평가 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AI·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정책을 잇는
지능형 지원 체계

경남 AI·디지털 교육의 미래를 묻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비전을 구체적인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 4가지 핵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기술을 통해 '어떻게 더 인간답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경남교육의 대답입니다.



인간다움을 품은 AI 책임 교육

AI 교육에 인간 존엄을 바탕으로, 발달 단계별 역량을 키워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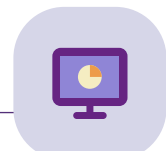
성장으로 이끄는 AI·디지털 수업·평가 혁신

교실을 지식 전달에서 의미 구성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AI를 활용한 '질문-분석-평가 (I-A-E)' 배움 체계를 통해 학생 주도 학습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 교사는 성장을 돕는 실천가로 변화합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AI·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수학·과학·정보 교과 기반의 융합 탐구 교육으로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AI 중점학교를 통해 정보 과학을 깊이 이해하며 인문·예술 소양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합니다.



정책을 잇는 지능형 지원 체계

디지털 웰빙 캠페인과 맞춤형 역량 연수로 교육공동체 전체의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합니다. 특히, 경남형 GPT로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함으로써, 선생님이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혁신의 두 가지 축, 교육과 행정의 혁신

교육 혁신

AI 기반 전면적 교육혁신의 주춧돌

- 경남형 AI 디지털 리터러시 정립
- AI 윤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 강화
- AI 중점학교 80개교 확대(2028년까지)
- 독서·인문교육 병행 및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행정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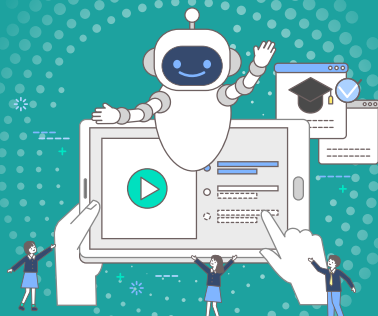
학교 행정업무의 고속도로

- 'GneGPT' 시스템 도입(237개 업무 학습)
- 공문·보고서 초안 작성, 법령 검색 등 지원
- 2026년 유치원·초등 시범 운영 후 확대
- 지능형 지식 체계 고도화로 업무 부담 경감

멈추지 않는 혁신, 경남교육이 미래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특집기획

AI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교실 풍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도내 학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경남의 AI 교육 철학을 현장에 구현 중이다.
첨단 기술을 디딤돌 삼아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성장하는 학교 8개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Part. 1 질문하고 검증하며 사고의 근육을 키우다



김해여자고등학교



김해분성고등학교

AI 중점학교 김해여자고등학교

알고리즘 설계로 묻고 답을 찾다.

김해여고는 2021년 AI 융합 교육 중심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2026년 'AI 중점학교' 운영으로 내실을 다지는 중이다. 1학년 전원이 정보 교과를 이수하며 기초를 다지고, 2·3학년은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등 심화 과목을 선택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밟는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사소한 질문조차 생성형 AI에 무작정 의존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실습에 앞서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짜보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순히 기술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여 AI의 결과물을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실전에서 빛을 발했다. 지난해 경남교육청 해커톤 한마당에 참여한 학생들은 '페트병 라벨 자동 분리 로봇'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기능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코드를 수정해 나가는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한 학생은 "과거엔 시험 문제를 위해 개념을 외우는 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왜 이렇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술을 단순한 편의의 도구가 아닌, 스스로 사고의 한계를 깨고 문제를 돌파하게 만드는 든든한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 과학중점학교 김해분성고등학교 *

AI의 답변을 의심하고 과학으로 검증하라.

논리적 설계가 기본이라면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미래 시민의 필수 덕목이다. '과학중점학교'인 김해분성고등학교는 과학 수업에서 AI를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닌 탐구 과정을 돕는 파트너로 활용한다. 물리학 수업에서는 양자역학의 이중 슬릿 실험이나 터널 효과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AI와 코딩 도구로 시각화해 살핀다. 이때 교사는 AI가 내놓은 답을 맹신하게 두지 않는다. "이 설명의 근거는 무엇인가?", "교과 개념과 맞는가?"를 끊임없이 되물게 하여 학생이 비판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업을 이끈다. 학생들 역시 이러한 방식에 긍정적이다. 한 학생은 "시뮬레이션 조건을 직접 바꿔보며 내 속도에 맞춰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막연히 이공계를 꿈꾸던 아이들은 이제 물리학, 데이터 분석 등 조금 더 구체화 된 진로를 고민한다. 어떤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 것인지 스스로 묻게 되었다는 한 학생의 변화는 주어진 정답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궤도를 개척해 나가는 아이들의 단단한 성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Part. 2 아날로그적 관찰과 디지털 상상력의 만남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성명초등학교

생명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로봇 조수

성명초등학교의 '지능형 과학실'은 아날로그적 관찰과 첨단 디지털 장비가 조화를 이루는 현장이다. 이곳의 탐구는 학교 운동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작은 생명체 '도둑게'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은 주변에서 마주친 생물을 관찰하며 "게는 왜 구석으로만 숨을까?"라는 사소한 궁금증을 품는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둑게는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을 선호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 직접 실험을 설계한다. 교과서 속 활자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생명체와 교감하며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탐구의 과정이다. 이때 디지털 기술은 탐구의 본질인 '관찰'을 돕는 다정한 조수로 활약한다. 아이들은 디지털 현미경으로 도둑게 다리의 털 하나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도 게가 은신처에서 나오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 한 학생은 "태블릿으로 AI에게 도둑게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봤을 때 과학실에 내 로봇 조수가 생긴 것 같아 든든했다"며 활짝 웃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한계가 있는



김해여자고등학교



김해여자고등학교

영역을 기술로 보완하자 아이들의 시야는 한층 넓어졌다. 디지털 기술을 생명 탐구의 도구로 삼은 아이들은 이제 학교 화단이나 텃밭의 작은 구멍조차 무심히 지나치지 않는 단단한 관찰자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 기술을 통해 생명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게 된 아이들. 이들의 따뜻한 시선이야말로 첨단 기술과 대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그려나갈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다.



*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함성중학교 *

데이터와 역사가 빛어내는 노래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인 함성중학교는 디지털 도구를 단순한 지식 전달 수단을 넘어, 학생들이 현상을 분석하고 탐구를 확장하는 매개체로 활용한다. 조석 데이터 분석이나 구글 어스를 활용한 지진 탐구 활동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은 교과서 속 텍스트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피며 자연 현상을 스스로 추론하는 법을 배운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지속 가능한 도시 숲'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사전 수업에서 '숲이 사라진 도시'를 상상하며 숲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어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툴에 구체적인 작곡 방향과 세밀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며 자신들만의 철학을 음악적 메시지로 승화시켰다.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며 가사 작사를 놓고 장면 전환 효과를 고민하는 일련의 과정은 숲이 단순한 나무의 집합이 아니라 '도시의 필수적인 심장'임을 아이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역사 수업에서도 기술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감의 도구로 쓰였다. 생성형 AI로 유관순 열사를 가상 인터뷰하며 "나라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단순히 상상할 때보다 실제로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 몰입이 잘 되었고,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더 깊이 느껴볼 수 있었다"는 학생의 고백처럼, 기술은 아이들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스스로 정립하게 만드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Part. 3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초개별화 교실

수학나눔학교 축동초등학교

오답을 지우고 배움을 그린다.

전체 인원이 5명인 소규모 학급인 축동초등학교 6학년 1반은 '수학나눔학교'이자 '통계 선도학교'로서 학생 개개인의 속도에 맞춘 '초개별화 수업'을 지향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일방적인 수업을 듣는 대신 각자의 스마트 기기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선택해 풀며 학습 주도권을 갖는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실패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다. 과거에는 칠판 앞에서 틀린 답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캔버스 위에서 자유롭게 쓰고 지우며 오답조차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즐기게 되었다. "처음엔 각기동의 전개도를 그리는 게 헛갈렸는데, 태블릿 앱으로 직접 접어보고 펴보니 머릿속이 뽕 뚫리는 기분이었다"는 학생의 소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제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며 서로의 탐구 결과를 나눈다. "수학 시간에 처음 친구들 앞에서 문제를 풀 때는 떨렸는데, 이제는 괜찮아졌다"는 아이들은 정답을 맞히는 성취감을 넘어, 자신의 풀이 과정을 친구들에게 당당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꼬마 수학자'로 성장하고 있다. 수평적인 소통 속에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낸 자리에,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즐거움이 채워지는 중이다.

축동초등학교



진주해광학교

AI·디지털 활용 연구학교 진주해광학교

디지털이 열어준 새로운 소통과 자립의 창

특수교육 현장인 진주해광학교에서 AI와 디지털 교육은 학생들의 자립 역량을 기르는 핵심적인 열쇠다. 박주연 교사는 "결과의 완성도보다 학생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는 데 가장 신경을 쓴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업에서 오직 치킨 이미지만 가득 채워 넣은 학생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응원했을 때 학생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치킨 사랑'을 자신 있게 발표하며 높은 자존감을 보였다. 디지털 기기는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든든한 창구가 된다. "글씨를 쓰는 건 어렵지만 터치만 하면 되니까 공부 가 더 쉬워졌다"는 학생의 말처럼, 에듀테크는 학습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춰준다. 특히 사회 시간에 인터넷 쇼핑으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보며 "어른이 정해주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기술이 이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되찾아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실에서 연습한 키오스크 주문 활동은 실제 삶의 현장으로도 이어진다. "태블릿으로 가게 놀이를 하면서 직접 고를 수 있어서 재밌었다. 나중에 엄마랑 햄버거 가게에 가면 제가 직접 주문해 드릴 거다"라고 말하는 아이의 눈빛에서 디지털 교육이 일상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Part. 4 데이터로 살피고, 책으로 세상을 읽다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철성중학교

LMS 데이터 사이로 아이의 마음을 짚다.

철성중학교는 학습관리시스템(LMS)과 바이브코딩을 활용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한다. 교사는 디지털 도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공을 들여 수업 시간이 도구 사용법이 아닌 본연의 탐구와 의사소통에 온전히 쓰이도록 조율한다. 기술이 뒤로 물러날수록 아이들의 생각과 관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이곳의 교육 철학이다. 기술의 도입은 교사를 단순한 지식 전달자에서 '성장의 관찰자'로 바꾸어 놓았다. LMS에 실시간으로 쌓이는 데이터는 겉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던 아이의 오개념이나 이해의 빈틈을 정확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 데이터를 살피며 빠른 학습자에게는 심화 과제를 안내하고, 느린 학습자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따뜻한 개별 피드백을 건넨다. "기존 수업 중에는 보이지 않았던 오개념이 LMS에 저장된 글 안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교사의 말은 기술이 어떻게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지 보여준다. 교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활동지나 서술형 답안지 사이로 수업의 내용이 아이 자신의 언어로 촘촘히 정리되어 있을 때다. 이처럼 기술이 덜어준 행정적 시간은 아이들과 깊이 있게 눈을 맞추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으로 치환되어 진정한 의미의 교실 혁신을 완성해 가고 있다.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

북(Book)적이는 채움 수업, 세상을 읽는 힘을 기른다.

정보가 순식간에 요약되는 시대의 흐름 앞에서 창원남산고등학교는 역설적으로 '독서'라는 본질에 집중한다. 이곳에서 문해력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나의 의미를 만들어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능력', 즉 '세상을 읽는 힘'으로 정의된다. 교사는 "AI가 빠르고 정돈된 답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정보가 왜 생산되었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는 '비판적 문해력'은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공강 시간, 학생들은 스마트폰 영상을 끄고 조용히 책장을 넘긴다. 이 같은 수동적인 정보 소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독서의 힘은 강력하다. 한 학생은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영상과 달리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고르고 작가의 의도를 탐구하는 과정은 온전히 나의 선택이기에 지



철성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

식의 깊이와 지적인 성취감이 확연히 다르다"고 고백한다. 지루한 일상 속에서 '고요한 나'를 만나 스스로 자라나는 시간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텍스트 이면의 문맥을 파악하는 훈련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훌쩍 넓혀놓았다. 학생들은 문맥 속에서 모르는 어휘를 직접 찾아가며 이해도를 높이고, 책 속 문제에 대해 타인과 토론하며 "나와 다른 생각이구나"를 기꺼이 수용한다. 이처럼 활자를 통해 길러진 비판적 사고와 협력적 소통 역량이야말로 기술과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를 단단하게 살아갈 미래 시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기술에 인간다움의 가치를 더하다

기술을 도구 삼아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배움의 본질을 고민하는 '사람'이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미래 교육은 비로소 완성된다. 정답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반문하며 탐구하는 아이들, 그리고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길을 지키는 교사들의 노력은 경남 AI 교육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기술의 편리함 위에 인간다움의 온기를 더해가는 경남 AI 교육의 내일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지지해주기를 기대한다.



뒷줄 인공지능로봇팀 윤우현, 강지훈 학생
앞줄 코딩드론팀 윤재원, 이건영 학생



정답이 아니라 나를 찾는 곳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

개교 첫해부터 전국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는 '2025 *WCRC(World Creative Robot Contest)' 피지컬 인공지능 로봇 부문 1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고, 2026년 4월 열린 '제1회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코딩 드론대회'에서는 참가 학생 20명 전원이 입상했다. 짧은 시간에 이룬 놀라운 성과. 그 비밀은 교실 안에 있었다.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아온 시간들. 학생들을 직접 만났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성장하게 했는지 듣기 위해.

* WCRC(World Creative Robot Contest): 로봇 제작과 인공지능·코딩 기술을 겨루는 국제 로봇 경진대회



코드로 움직이는 첫 경험

“리모컨이 아니라, 코드로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코딩드론팀 윤재원 학생(2학년, AI자동제어학과)은 첫 드론 수업을 잊지 못한다. 노트북에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자, 가만히 있던 드론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자신이 입력한 숫자와 명령이 그대로 움직임이 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신기함은 곧 ‘현실’이 되었다. 숫자 하나만 달라져도 드론의 경로는 완전히 바뀌었다. 전진 거리가 조금만 짧아져도 방향이 틀어졌고, 회전 각도가 어긋나면 장애물에 부딪혔다. 멈춰서 다시 보고, 코드를 한 줄씩 확인하고, 숫자를 바꿔 넣는 과정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견영 학생(2학년, AI융합팩토리과)도 같은 경험을 했다. “예선 때 드론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코드를 계속 수정했어요. 계속 시도해서 결국 통과했죠.” 코딩드론은 ‘수정과 반복’ 그 자체다. 담당인 윤지은 선생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이들이 처음엔 ‘왜 안 되지?’ 하고 멈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 코드를 다시 봐요. 스스로 오류를 찾으려고 하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본 경험은 오래 남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이어지는 이야기

대회를 앞두면 수업이 끝나도 대화는 멈추지 않는다. 윤재원, 이견영 학생은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미션을 어떻게 통과할지, 경로를 어떻게 잡을지, 방향을 어떻게 바꿀지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값을 바꿔 보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같은 문제를 두고 다른 생각들이 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보이고, 마치 마법처럼 해결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 방식뿐 아니라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에 와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윤재원 학생은 최근 전기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며 꿈을 차근차근 키워가고 있다. 이견영 학생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을 들으며 코딩과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다고 말한다. ‘해야 한다’보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진 것이다.



- 01 드론 코드를 수정하며 반복 비행 실습
- 02 조종기 화면으로 비행 데이터를 점검
- 03 로봇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집중의 순간
- 04 데이터 코딩 장면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

인공지능로봇팀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WCRC(World Creative Robot Contest, 물류로봇경진대회)에 참가한 윤우현, 강지훈 학생(2학년, AI융합팩토리과)은 1학년 때부터 전국 무대에도 전했다. “어제는 되던 코드가 오늘은 왜 안 되는지, 그걸 계속 고민했어요.” 센서 값, 조명, 배터리 상태 등 작은 환경 변화에도 결과는 달라졌다. 책에서 배운 코드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순간, 학생들은 다시 돌아갔다. 코드를 한 줄씩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다시 실행해 보는 과정.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강지훈 학생의 말처럼, 수업은 ‘정답 찾기’보다 ‘이유 찾기’에 더 가깝다. 담당인 이성현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한다.

“처음엔 빨리 답만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왜 안 되는지’를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온 경험들이 고스란히 학생들의 ‘실력’이 되었다.

* WCRC(World Creative Robot Contest): 로봇 제작과 인공지능·코딩 기술을 겨루는 국제 로봇 경진대회



함께 맞춰 가는 시간

WCRC는 팀 프로젝트였다. 강지훈 학생은 데이터 학습과 코딩을, 윤우현 학생은 객체 인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맡았다. 각자의 역할은 달랐지만,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았다. 서로의 작업이 맞아야 로봇이 제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깨닫는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맞춰 가는 것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윤우현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그 시간이다. “밤이 늦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실습실이에요.” 늦은 시간까지 서로의 코드를 들여다보고, 잘 안 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던 순간들. 그 시간이 학생들을 성장하게 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실습실에 남는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더 해보고 싶어서.



기술보다 먼저 남는 것

“다시 해보자.” “같이 해보자.” “왜 틀렸는지 보자.” 양산인공지능고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며 가장 자주 했던 말들이다. 코딩드론팀은 실패를 고쳐가던 시간을, 인공지능로봇팀은 멈춘 코드를 다시 들여다보던 순간을 기억한다. 배우고, 해보고, 막히고, 다시 고쳐보고.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래서 양산인공지능고의 성과는 ‘갑자기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멈추지 않고 도전했던 시간들이 만든 결실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끝까지 들여다보는 힘, 포기하지 않는 태도, 함께 풀어나가는 감각. 지금 양산인공지능고의 아이들은 정답을 찾는 법보다, 끝까지 답을 만들어 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 × ✓ ≤ 칠판을 벗어난 수학 놀이터

김해 용산초등학교
최일석 교사

수학은 종종 교실 안에서 ‘포기하고 싶은 과목’ 1순위로 꼽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과 문제 풀이 위주의 결과 중심 수업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점차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간다.

하지만 여기, 수학을 ‘두려운 대상’에서 ‘즐거워 탐구 대상’으로 탈바꿈시킨 교실이 있다. 칠판과 문제집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도구를 통해 아이들 각자의 보폭을 맞춰주는 김해 용산초등학교 최일석 교사의 이야기다. 그는 맞춤형 디지털 수업을 설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12월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수상했다. 기술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기다림이 존재하는 최일석 교사의 ‘수학 놀이터’를 들여다보았다.



÷ 추상적 개념의 벽을 허무는 × 맞춤형 도구

최일석 교사가 디지털 도구를 수업에 도입하기로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교실 현장의 목소리에 있었다. “선생님, 분수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라며 추상적인 개념의 벽 앞에서 헤매는 아이와 “저는 다 풀었는데요”라며 지루해하는 아이. 최 교사는 이 엄청난 학습 속도의 격차를 줄이고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수학 수업’을 만들고 싶었다. 교사의 직관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개별적인 맞춤형 학습 환경이 절실했다.

이러한 치열한 고민 끝에 그가 찾아낸 해답이 바로 ‘에듀테크(디지털 도구)’였다. 그는 곧바로 경상남도교육청 플랫폼 ‘아이톡톡’과 ‘똑똑수학탐험대’ 등을 교실에 적극적으로 들여왔다. 효과는 놀라웠다. 평면적인 공식에 갇혀 있던 도형들은 수학 공학 도구 ‘알지오매스(AlgeoMath)’를 통해 생명을 얻었다. 연필로 억지로 그리는 대신 화면 위에서 직접 도형을 조작하고 변을 움직여보며 성질을 탐구할 때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에듀테크: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교육에 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교육

*알지오매스(AlgeoMath):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는 수학 탐구용 소프트웨어





01

✚ 실수할 자유,

✕ 에듀테크가 만들어낸 '기다림의 시간'

최 교사는 디지털 도구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한다. 종이 학습지는 틀리면 지우개로 박박 지워야 하지만, 디지털 화면에서는 실패해도 쉽게 지우고 여러 번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에듀테크가 아이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다.

학습 데이터는 실시간 대시보드로 교사에게 전달된다. 진도가 느리거나 개념을 헷갈리는 아이가 있으면 최 교사는 즉각 다가가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정답을 쥐여주는 대신 부족한 개념 영상을 확인하게 하거나 맞춤형 보충 문항을 제공한다. 기술이 단순 채점을 대신해 준 덕분에 교사는 아이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정교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교실은 어떻게 변했을까. 실제 연구 결과, '특목수학'을 활용한 학생들의 수학 흥미와 효능감 등 정의적 영역 점수는 86.2점으로 일반 수업 집

단(77.0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제 아이들은 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답을 맞힌 개수보다 '다시 시도한 횟수'로 칭찬받는다. 기기 활용 초기, 기초가 부족해지거나 게임만 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학부모들도 스스로 태블릿을 켜고 과제를 해결하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평가도 축제가 되는 교실,

✕ 스스로 찾는 성취감

최 교사가 꿈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탐구한 뒤 모둠별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러닝페어'다. 학생들은 *오조봇(Ozobot)을 활용해 '여행하고 싶은 도시의 자율주행 코스'를 짜보고, 경로 간의 길이를 비

*러닝페어: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전시물을 만들어 프로젝트 학습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

*오조봇(Ozobot): 색(컬러) 기반 명령으로 로봇을 움직이며 코딩 원리를 체험하는 교육용 코딩 로봇

례식과 정수비로 나타냈다. 통계 자료를 활용해 수학 여행지 포스터를 만들며 수학이 삶 속에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 모든 과정은 '톡톡폴리오'에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딱딱한 평가가 하나의 축제로 변했고,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의 주인공이 되었다. 수학을 정말 싫어하던 한 아이가 '비밀 암호 풀기' 활동에 몰입해 마침내 암호를 해독한 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라며 환하게 웃던 순간. 최 교사는 그때 '배워서 남 주자'는 자신의 교육 신조가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온기,

✕ 그리고 새로운 탐험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도 교실을 지탱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성장의 방향을 잡아주는 정서적 연결과 가치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교사의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가끔 기기가 고장 나거나 로그인 오류로 진땀을 뺀 때면 '예전처럼 수업할까?'라는 유혹도 들지만 최 교사는 그 과정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수학 시간에서 증명된 '디지털 도구의 힘'을 이제 과학 수업으로 확장한다. 올해 'C.P.R. LIV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주변의 생태계를 데이터와 연결하고, 아이들이 환경 문제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이들의 배움이 '주어진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질문을 해결하는 여정'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최일석 교사는 막막함을 느끼는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다정한 응원을 남겼다.

수학은 정답을 맞히는 경주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세상을 그려 가는 하나의 탐험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 에듀테크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이들 곁으로 가까이 데려다주는 통로입니다. 선생님들의 용기 있는 시도가 교실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 01 최 교사가 칠판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 02 전자칠판 화면을 보며 학생이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
- 03 학생이 직접 만든 학습 결과물을 들고 발표하고 있는 모습
- 04 특목수학을 활용하고 있는 장면



02



03



04



창녕 이방초등학교 전경



직접 가꾼 재료로 요리하는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

작지만 '맛있는' 학교의 반란,

텃밭에서 식탁까지,
아이들이 배우는
생생한 삶의 지혜



창녕 이방초등학교

조용하던 창녕의 한 초등학교. 최근 이곳 복도에는 연필 소리 대신 경쾌한 도마 소리가, 차분한 공기 대신 침샘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 들어찼다. 교실을 벗어나 앞치마를 두른 전교생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하고, 우리 고장의 식재료를 활용해 다채로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 맛보는 창녕 이방초등학교의 이야기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소규모 학교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열광하는 '요리'를 공교육에 전면으로 끌어들이는 '글로벌 셰프 푸드학교'. 이 파격적이고 트렌디한 특색 교육은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외부의 시선을 끌어모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의 매력적인 해법이 되었을까? 이방초등학교 송영하 교사를 만나 작지만 알찬 교육의 묘미를 들어보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요리가 가르쳐준
협력과 성장

이방초등학교가 '직접 가꾼 재료로 요리하기'를 특색 교육으로 삼은 배경에는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자리하고 있다. 창녕은 양파의 시배지이자 전국 최대 마늘 생산지다. 여기에 제철 농산물을 기를 수 있는 학교 텃밭이 있었고, 마침 학교 바로 옆에 창녕군과 한 외식 전문 기업이 손잡고 추진한 청년 외식 창업 프로젝트 '산토끼 밥상'이 들어서며 요리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훌쩍 높아졌다. 이 모든 환경적 요소를 포착한 영양 교사의 제안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노

고가 더해져 지금의 특색 교육이 탄생했다. 아이들은 매년 봄이 되면 학급별로 기르고 싶은 작물을 직접 선택해 모종을 심는다.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어 수확한 농작물은 직접 다듬어 요리 시간의 훌륭한 식재료로 쓰인다. 송영하 교사는 이 과정이 곧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식물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관찰하며 과학과 실과 교과의 내용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재배의 즐거움부터 수확의 성취감까지, 흙을 만지며 얻는 정서적 만족감은 교과서 밖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배움이죠.”



01



02



03

- 01 이정연 영양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요리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 02 학생들이 직접 만든 달기 모찌
- 03 학생들이 재료를 손질하며 요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 04 학생들이 완성된 요리 결과물을 함께 확인하며 공유하고 있다.
- 05 교실에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이정연 영양교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요리가 가르쳐준
협력과 성장

요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종합 예술이다. 전교생이 학년군별로 모여 요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음식 재료를 나누며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몸으로 익힌다.

“요리를 하면서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다 같이 완성한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라는 한 학생의 해맑은 소감처럼, 요리 시간은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된다.

물론 모든 요리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정연 영양교사는 “음식이 까맣게 탄 적은 없지만 타르트나 토르티야(또띠아)처럼 일정한 모양이 나와야 할 때 반죽이 질게 되거나 모양이 망가지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교사는 선불리 대신해주지 않는다. 아이들 곁에 머물며 스스로 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할 뿐이다. 실패를 딛고 요리를 완성해 내는 경험은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훌쩍 키워준다.

요리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는 또 있다. “평소 밥을 먹을 때 버섯이 나오면 다 빼고 먹었는데, 요리 시간에 직접 버섯을 손질하고 요리해서 먹어보니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라는 한 아이의 고백처럼, 편식 교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이다. 직접 기른 양파와 마늘의 아리고 매운 향에 거부감을 느끼던 아이들은 채소를 노릇하게 구워 장아찌를 담그며 매운맛이 기본 좋은 단맛으로 변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

는 순간, 채소와 친해진 아이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나아가 서툰 솜씨로 만든 요리를 가족에게 대접하고 긍정적인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쑥쑥 자라났고 학교생활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다.



04

산토끼의 멜로디와
어우러진 100년 학교의
눈부신 부활

이방초등학교의 매력은 요리 수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민동요 ‘산토끼’를 작사·작곡한 고(故) 이일래 선생이 재직했던 곳으로 ‘산토끼 노래학교’라는 뜻깊은 별칭을 가진 이곳은 산토끼 합창단과 방과 후 피아노 교실 등 풍부한 예술 교육을 자랑한다. 지난 방학에는 8주간의 특목 영어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차별화된 교육 과정은 뚜렷한 수치적 변화로 증명되었다. 2025학년도 20명이던 학생 수는 꾸준한 전학 문의와 입학으로 이어져 현재 26명으로 늘었다. 작년에 서울과 대구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 역시 높은 만족도 속에서 매일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이방초는 멈추지 않고 더 큰 내일을 그린다. 앞으로



05

지역 특산물 연구소와 협력해 조리법을 전문적으로 고도화하고,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등 마을과 함께 크는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로 100회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 깊은 학교. 최근에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알록달록한 교실과 리모델링된 산토끼 도서관까지 갖추며 완벽한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크기는 작지만 가장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력적인 이방초등학교로 오세요!”

인터뷰 말미 송영하 교사가 남긴 다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초대에 경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초록이 가장 짙어지는 계절, 아이들의 웃음도 가장 멀리 번진다. 함양 마천초등학교 운동장을 뛰노는 다섯 아이의 발걸음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경기도에서 살던 두 가족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삶의 방향을 바꿨다. 익숙한 도시를 떠나 지리산 자락 함양으로 내려온 선택. 그 중심에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나고 싶었던 부모의 간절함이 있었다. 김소람 씨와 김진경 씨는 현재 한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각각 두 딸 이서아(11), 슬아(8) 양과 세 아들 윤성현(11), 성호(9), 성준(7) 군을 함께 키우고 있다. 처음에는 교육을 위해 시작된 이동이었지만, 이곳에서 두 가족은 학교를 넘어 삶의 방식까지 다시 배우고 있다.

학교를 따라 삶을 옮긴 두 가족

함양에서 함께 자라는
다섯 아이



월요일을 기다리는 아이들

도시에서의 학교생활은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였다. 학원, 예체능, 영어, 태권도까지 부족함 없이 채워 넣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달랐다. 특히 김소람 씨의 첫째는 일요일 저녁만 되면 "벌써 월요일이야?"라며 학교 가는 일을 부담스러워했다. 학교생활은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부모의 눈에는 즐거움보다 피로가 먼저 보였다. 김진경 씨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첫째의 사교육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둘째, 셋째까지 이어질 교육비 부담은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지 않으면 뒤쳐질 것 같은 불안'이었다.

그 불안을 내려놓게 한 곳이 바로 마천초였다. 두 가족 모두 처음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인상을 "따뜻했다"고 기억한다. 아이들이 억지로 가는 학교가 아니라 스스로 가고 싶어 하는 공간, 학부모를 경계하지 않고 먼저 인사하는 아이들, 교장실 문까지 활짝 열어두는 학교의 분위기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였다.



왼쪽부터 이서아(11), 윤성현(11),
윤성준(7), 이슬아(8), 윤성호(9)

왼쪽 세 아들 엄마 김진경 씨,
오른쪽 두 딸 엄마 김소람 씨

책보다 먼저 몸으로 배우는 학교

마천초의 가장 큰 매력은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는 교육이다. 월요일 마을 탐방 수업과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산·들·강 프로젝트’는 특히 만족도가 높다. 아이들은 길 없는 산을 오르고, 진흙에 넘어지고, 나무에 올라가며 자연을 교과서 삼아 배운다. 김진경 씨는 특히 둘째가 1학년 때 경험한 ‘월요일 마을 탐방 수업’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주말이 끝난 월요일 아침이면 학교 가기 싫어지기 마련인데, 아이는 오히려 월요일을 기다렸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마을 곳곳에 핀 꽃 이야기, 개울에 발을 담구고 돌을 주웠던 이야기 등 조잘 조잘 하고픈 말도 많아졌다. 그렇게 아이들은 마을 곳곳을 걸으며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자연과 친해졌다. 도시에서라면 비용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쉽지 않았을 활동들이 이곳에서는 학교 일상이 된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김소람 씨는 “학원 전기요금만 보태줄 바엔 아름다운 자연과 훌륭한 선생님들의 1:1 교육이 훨씬 좋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이 먼저 말하는 “우리 학교가 좋아”

무엇보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증명하는 건 아이들의 표정이다. 아이들은 함양 생활의 좋은 점으로 하나같이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꼽았다. 철봉을 타고 산을 오르며 노는 일이 즐겁다는 서아, “전교생 모두와 신나게 논다”고 말하는 성현, 쉬는 시간이 30분이라 모래놀이를 할 수 있어 좋다는 성호의 말에는 지금 학교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넓은 하루를 주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즐거움은 이어진다. 다섯 아이는 마당 있는 집과 집 앞 계곡, 맑은 공기 속에서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며 논다. 도시에서는 시간을 내야만 가능했던

자연이 이곳에서는 일상이 되었다. 아이들이 “학교가 좋아”, “함양에 와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특별한 한 가지가 아니라, 하루 전체가 놀이와 배움으로 이어지는 삶 그 자체에 있었다.

- 01 텃밭수업하는 윤성호(9)
- 02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와 놀이를 넘나들며 스스로 배우는 하루
- 03 함양에서 함께 살아가며 일상 속 배움을 쌓아가는 시간



01



02

다섯 남매처럼, 함께 자라는 집

두 가족의 아이 다섯은 이제 한집에서 먹고 놀고 배우며,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부르는 진짜 식구가 됐다. 처음 남편들의 인연으로 알게 됐고, 첫째 아이를 5일 차이로 낳으며 육아의 시간을 함께 통과했다. 그 시간 속에서 쌓인 신뢰는 함양 정착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됐다. 남편들이 도시에서 일하며 주말에만 함양에 오지만 두 엄마는 함께해서 그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 아이들도 서로를 사촌처럼 대하는 수준을 넘어 정말 다섯 남매처럼 살아간다. 큰 아이들이 함께 동생들을 챙기고 돌본다. 삼형제만 있던 집에 여자 형제들이 생기자 분위기도 달라졌다. 외로웠던 형제가 다정하게 “오빠가 도와줄게”를 말하게 됐고, 형제 중심이던 관계는 배려와 돌봄의 폭이 넓어졌다. 무엇보다 엄마들에게는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 아이가 아픈 날, 한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돌봐주는 공동육아의 힘은 타지 정착의 불안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작은 학교가 가르쳐준 가장 큰 가치

함양에서의 시간은 아이들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등교를 힘들어하던 아이는 이제 월요일 수업을 기다리고, 학원 스케줄에 쫓기던 삼형제는 자기 속도로 공부하고 놀며 더 밝아졌다. 형의 그늘에 있던 둘째는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의젓함 속에 감정을 숨기던 막내는 이제 마음껏 울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부모들은 그것을 “아이들이 더 어련이다워졌다”고 표현했다. 두 가족이 이곳에서 얻은 교육의 가치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나의 속도를 찾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힘이다. 작은 학교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서로 다른 학년과 성향을 품어주며, 경쟁보다 관계를 먼저 배우게 한다. 도시에서는 얻기 어려웠던 ‘함께 자라는 경험’이 이곳에서는 매일의 일상이 된다.

언젠가 아이들이 성장해 바쁜 삶에 지칠 때가 오더라도, 함양에서의 기억은 오래 남을 것이다. 천왕봉을 바라보던 아침,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계곡으로 달려가던 여름, 전교생이 한집에 모여 놀던 오후, 그리고 월요일을 기다리게 만든 학교. 배움이 꼭 책상 위에서만 자라는 것은 아니다. 함양의 작은 학교는 두 가족에게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아이의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채워 넣는 데서가 아니라, 아이의 속도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수시 - 학생부 종합전형 톺아보기

지난 호에서는 수시전형 중 대표적인 전형인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더불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과 함께 학생의 성장 기록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항목들이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전형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 내신 성적 체계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며 대학별로 전형이 세분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형이기도 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분화되며, 평가 기준의 세부 비율에 차이를 두며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 전형별 특징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난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를 지원할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성장형 인재로, 진로 역량에 강점을 보인 학생이라면 탐구형 인재로, 모든 영역에 대해 골고루 우수한 학생이라면 융합형 인재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과목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학생의 관심, 흥미,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의 중요성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국립대에서 모집단위별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들을 발표하고 있어서 1, 2학년 때 과목 선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전형의 중요한 평가 요소인 면접 역시 꾸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구분을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만큼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의 합격선이 서류형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2028 대입 개편으로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자,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대, 홍익대, 고려대 등이 관련 전형을 운영 중인 가운데, 중앙대와 성균관대도

2027학년도부터 각각 '성장형 인재'와 '융합형 인재' 전형에 높은 수준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028학년도에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서류형) 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직 202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이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능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에서 학생들이 가장 주력해야 할 영역은 영어 영역입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로 실시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의 난도가 높아 1등급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2, 3등급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비율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영어영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 자신의 성적보다 좋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 역시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시 6회 지원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호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안내드릴 때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전형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병행하고,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전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의 꿈을 위해 누구나 준비해야 할 꼭 필요한 전형입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 더 천천히

비가 잦은 6~8월, 통학길은 더 위험해집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젖은 도로는 제동거리가 길어져
갑자기 멈추기 어렵습니다.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천천히 살피며 안전하게 이동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남교육청 안심우산

횡단보도에서는 '확인'이 먼저

아이들이 꼭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횡단보도 안전 3단계

STEP 1

멈추기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춥니다.



STEP 2

살피기

좌우를 살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STEP 3

건너지

차가 완전히 멈춘 뒤
천천히 건넙니다.



안전한 우산 사용 TIP



투명우산을 사용하면
서로의 모습과 주변이
잘 보여 안전합니다.

- 가능하면 투명 우산 사용하기
- 밝은 색 우산 사용하기
- 우산은 눈높이보다 살짝 높게 들기
- 바람 부는 날은 우산을 단단히 잡기

안전한 보행수칙

- 휴대폰을 보며 걷지 않기
- 친구와 장난치며 뛰지 않기
- 물웅덩이 피해
차도로 이동하지 않기
- 무단횡단 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빨리' 보다 '확인' 하는 습관이 안전을 만듭니다.

비 오는 날, 운전자는 더 천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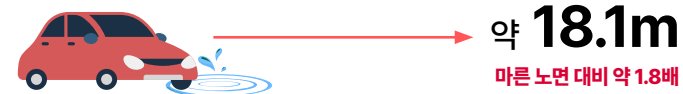
아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위험 상황

맑은 날(마른 노면)



비오는 날(젖은 노면)



※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자 시야 비교

맑은 날

시야가 넓고 아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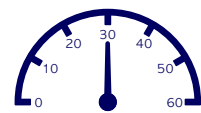
비오는 날

우산, 빗물,
안개로 시야가
좁아져 발견이 어려워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1

학교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2

앞차와 충분히
거리를 둡니다.



3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멈춥니다.



4

학교 앞은 주정차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서두르지 마세요

학생은 확인하고, 천천히

- 횡단 전 좌우 확인하기
-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건너기
- 젖은 길에서 뛰지 않기
- 물웅덩이를 피해 도로에 가지 않기

운전자는 줄이고, 멈추고, 기다리고

- 횡단보도 정지선 앞 멈추기
- 학교 앞 서행 운전하기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 비 오는 날 여유 갖고 운전하기

보호자는 함께 배우고, 지키고

- 우천 시 밝은 옷 착용시키기
- 안전한 통학길 함께 확인하기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천하기
-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일찍 나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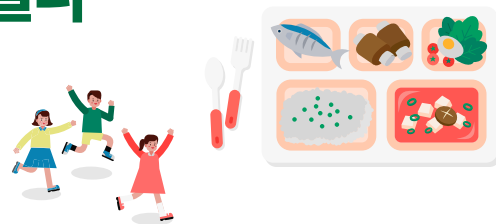
3초의 여유가 아이의 안전을 지킵니다!

학교·가정·운전자가 함께 만들어요! 안전한 등굣길



함께 짓는 밥,
함께 크는 아이들
경남 학교 급식의 행복한 내일을 열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아이들에게 ‘급식’은 하루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즐거운 시간이다. 이 소중한 밥상 뒤에는 매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안전하고 맛있는 한 끼를 짓는 사람들의 정성이 숨어 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을 넘어,
급식을 '생태계와의 조화와 올바른 식문화를
배우는 매개체'로 바라보는 곳이 있다.
바로 지난 2024년 1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문을 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며 학부모의 신뢰까지
얻어내고 있는 '맛봄'의 우태정 연구사를 만나보았다.

단순한 한 끼를 넘어,
식문화의 가치를 탐구하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 급식은 그저 허기짐을 채우는 밥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올바른 식문화를 배우고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익히는 귀중한 교육의 장이죠. '맛봄'은 학교 급식이 이러한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우태정 연구사의 설명처럼 맛봄은 급식의 가치를 재
정립하는 종합 연구 공간이다.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다채로운 영양·식생활 체험은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급식 관계자 연수, 식재료
안전성 검사, 급식 정책 연구까지 다양한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다.



식문화의 가치 탐구





01 맛봄 체험관 '푸드네 편의점'
02 시설 내 다양한 반찬 모형들
03 급식 만들기 체험을 하는 진주 봉래초 학생들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식재료 안전성' 역시 맛봄의 철저한 관리 아래 놓여 있다. 연구소 내 식품안전분석실을 통해 조리 도구 미생물 검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농산물 중금속 검사를 꼼꼼하게 실시한다. 올해도 수백 건의 검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 기관과 연계해 식재료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내고 있다.



오감으로 배우는

*'푸드 마일리지 제로'의 즐거움

교실 책상에서 영양 지식을 외우는 것과 맛봄에 와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 연구사는 '함께 먹고 나누는 식사'의 정서적 가치를 먼저 꼽았다. 초중등학생 4명 중 1명이 혼밥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소통하는 경험은 아이들의 정서적 만족감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푸드 마일리지 제로: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를 '제로(0)'로 만드는 것

푸드 마일리지 제로



"오감 체험 조리 실습은 우리 식재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식이나 바람떡 같은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며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체험하죠. 텃밭에서 제철 식재료를 직접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의 노동과 자연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이 재료들이 탄소 발생을 줄이는 훌륭한 저탄소 식단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다채로운 색감으로 꾸며진 학생 체험 공간 역시 인기 만점이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탄성을 터뜨린 아이들은 분리배출 자전거 타기, 김치 게임, 보드게임 등을 즐기며 활기찬 에너지를 쏟아낸다.

급식 베이스캠프



가정과 학교를 잇는 밥상, '키썩썩, 몸짱 만들기'

맛봄은 올바른 식습관은 결국 가정의 밥상에서 완성된다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주말에 운영되는 '가족 단위 식생활 체험(키썩썩, 몸짱 만들기 한 달 프로젝트)'은 아주 특별한 소통 창구다. 학생의 식생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달간 온 가족이 함께 식습관 개선을 실천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들이 직접 참여한다. 가정, 학교,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키 성장과 식습관 개선에 높은 효과를 보이며 뜨거운 만족도를 기록했다. 맛봄은 이 성공적인 모델을 2026년 각급 학교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매일 한 끼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인터뷰 말미, 우태정 연구사는 매일 점심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과 뜨거운 조리실에서 땀 흘리는 급식 관계자들을 향해 다정한 연대와 응원의 한마디를 남겼다.

"학교 급식은 가장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이며, 타인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강도 높은 노동이나 때론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는 순간도 있겠지만, '밥 짓는 일'이 지닌 이 위대하고 소중한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맛봄 역시 이 가치가 널리 공유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힘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입맛을 살피고, 식재료의 안전을 지키며, 다 함께 행복한 식문화를 만들어가는 곳.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이 지어내는 따뜻한 밥 냄새가 경남의 모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고 있다.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든든한 '급식 베이스캠프'



맛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현장에 배치되기 전 신규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들에게 실전 같은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 급식 위생 관리부터 조리 실습까지,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연수는 급식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준다.

"특히 신규 영양교사 과정에는 '실습 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작성 원리를 직접 익히고 이를 실제 식단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련하죠. 연수 후 업무 수행 능력과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참가자들의 응답을 볼 때마다 든든한 보람을 느낍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영감

어제와 내일이 교차하는 경남의 신상 문화 공간 산책

거창한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새롭게 문을 연 낯선 공간에 들어서면 것만으로 일상은 기분 좋은 자극을 받는다. 최근 경남에는 지역이 품은 고유한 자산과 예술이 만나 탄생한 매력적인 전시관들이 연이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100년의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실크의 우아한 결부터 거장의 조각 작품과 인공지능이 교감하는 경이로운 무대까지. 따뜻한 봄날, 우리의 일상에 색다른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경남의 따끈따끈한 신상 문화 공간 두 곳을 소개한다.



100년의 금지,
찬란한 빛과 결로 직조되다,
진주실크박물관

전국 실크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실크의 수도' 진주. 이곳에 새롭게 문을 연 '진주실크박물관'은 100여 년을 이어온 진주 실크의 역사와 기술, 예술적 가치를 집대성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단순한 산업 기념관을 넘어 진주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박물관 내부는 실크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가득하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실크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그 속에 녹아든 진주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다채로운 전시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초대형 파노라마 영상관은 실크의 탄생부터 산업의 발전사까지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전달해 생생함을 더한다.

또한 '누에고치 스노우볼', '실크 키링'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어 관람의 유익함을 높인다. 찬란한 빛과 결로 직조된 100년의 자부심, 그 눈부신 여정을 직접 확인해 보자.

운영 시간 10:00 - 18:00(매주 월요일 휴무)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4

조각 거장의 숨결과
미래 기술의 조화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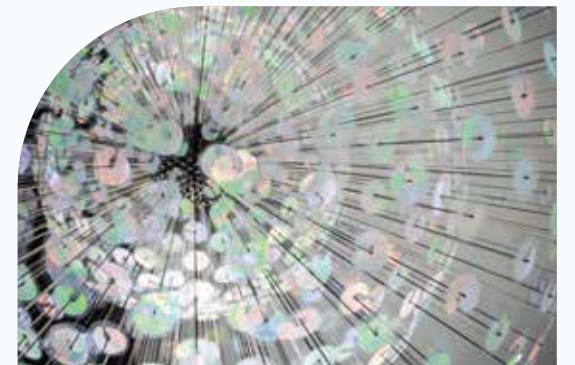
지난 4월, 뜨거운 기대 속에 문을 연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조각 예술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다. 김해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이곳은 스포츠의 핵심인 '몸'과 조각 예술의 근간인 '신체'를 연결하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보여준다.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제작한 한국 구상조각의 거장이자 김해 진영 출신인 김영원 작가의 웅장한 작품세계를 직접 마주할 수 있다. 개관 기념전 <확장하는 인간, 함께 미래를 그리다>는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기술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세 개의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제1전시실에서는 내면의 공명을 탐구하는 김영원 작가의 철학적 여정을 조망하고, 제2전시실에서는 백남준을 비롯한 15팀의 작가들이 뉴미디어 예술을 선보인다. 제3전시실에서는 AI 시대 '쓰기와 도구'의 의미를 살피며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문인화의 뿌리부터 첨단 기술까지 아우르며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이곳에서, 거장의 숨결을 따라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의 풍경을 함께 그려보자.

운영 시간 10:00 - 18:00(매주 월요일 휴무)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 243 (김해종합운동장 내)

새롭게 문을 연 두 공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의 자랑스러운 자산과 미래의 기술을 아름답게 엮어내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환기가 필요하다면 이번 주말에는 경남의 새로운 전시관으로 나들이를 떠나보자. 공간이 건네는 다채로운 이야기가 우리의 하루를 더욱 눈부시게 채워줄 것이다.





① 진주교회가 설립한 기독교유치원 원생들과 교사들



② 1928. 의신유치원 보육생들



③ 1907년. 진주초등학교 대한제국 황태자 책봉 기념사진



④ 경남최초의 특수학교가 1950년 6·25 전쟁으로 소실된 모습



④ 현 경남헤림학교

경남 최초의 학교와 유치원

경남 최초의 유치원

☘ 밀양유치원. 1910

1910년에 설립된 밀양유치원*은 부산·울산을 제외한 경상남도 최초의 유치원으로, 1913년 세워진 경성유치원과 함께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의 시초로 평가된다. 1904~1906년생 아동들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당시 유아교육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놀이와 생활습관, 한글 및 기초예절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공립교육 이전 단계의 유아 사교육 실험장으로서 한국 근대교육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전통은 밀양 지역 유아교육의 모태가 되었다. *2015년 설립된 밀양유치원과는 다른 곳임

☘ 진주기독교유치원. 1916 - ①

서부 경남 최초의 교회인 진주교회는 1905년 의사인 커를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다. 교회 설립 이듬해인 1906년 안동남학교와 정숙여학교를 세워 무료로 가르쳤고 1907년엔 서점(진양서관)

도 열었다. 진주기독교유치원은 진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유치원으로, 매클라렌 의사의 부인 제시가 1916년 개원하여 운영했다. 진주기독교유치원이 설립된 지 11년 만에 안란에 목사 명의로 당국에 인가 신청을 하여 1928년 5월 22일 배둔병원 원장 부인이 초대원장에 취임하였다. 1941년 7월 2일 진주기독교유치원의 경영권을 호주선교회로부터 진주교회가 인수받아 운영하다가 1947년 10월 19일 화재로 인한 소실로 폐쇄하게 되었다.

☘ 의신유치원. 1929 - ②

1929년 4월 문창교회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된 유치원. 1929년 마산 최초의 교회인 문창교회가 설립한 의신유치원은 경남 동부 지역에서 가장 이른 기독교계 유치원이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 아이다 맥피(Ada McPhee)가 1933년 월영유치원 설립에도 참여했으며, 시인 김수돈이 1942년 이곳에서 교편을 잡은 기록이 남아 있다.

경남 최초의 학교

🏫 진주초등학교. 1895 - ③

진주초등학교는 전국에서 두 번째, 도내에서는 최초로 개교한 근대학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이다.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공포된 소학교령에 따라 1895년 9월 진주관찰부(현재 경상남도청)가 위치한 진주성에 경상우도(右道)소학교로 개교하였다. 단발령이 내려져 의병이 봉기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함에 따라 개교 2개월여 만인 11월 휴교하였다가 1896년 1월 교명을 진주공립소학교로 변경하여 재개교하였다. 진주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1906년 공립진주보통학교, 1911년 진주공립보통학교, 1919년 진주 제1공립보통학교, 1938년 진주 제1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진주 제1공립국민학교, 1942년 진주길야공립국민학교, 1945년 진주 중앙공립국민학교, 1950년 진주 중앙국민학교, 1996년 중앙초등학교, 2011년 진주초등학교 총 12번이나 교명이 바뀐 만큼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같이 걸어왔다. 2025년 2월 기준 총 125회, 27,10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경남 최초의 특수학교

🏫 경남헤림학교. 1969 - ④

1969년 3월 19일 청각장애 1·2·3학년 각 1학급으로 경남국민학교(현 경남헤림학교)를 개교하였다. 전국적으로는 사립 특수학교가 먼저 설립되었지만, 경남은 공립 특수학교가 먼저 설립되었다. 그 후 중학교 과정은 1980년 경남헤림학교에 정신 박약부와 청각 장애부를 각 1학급씩 개설한 것이 시작이고, 고등학교 과정은 1989년 경남헤림학교에 정신 박약부와 청각 장애부를 각 1학급씩 개설한 것이 시작이었다.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은 1986년 경남헤림학교, 경남천광학교, 진주해광학교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공과는 1998년 진주해광학교에 도예과와 원예과를 각 1학급씩 개설한 것이 시작이었다. 경남헤림학교는 정신지체와 청각 장애를 동시에 교육하고 있어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1985년 6월 1일 경남헤림학교에서 청각 장애를 분리하여 경남천광학교(현 창원천광학교)를 개교하였다.

동백의 붉은 마음이 호국의 다짐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다시 찾는 거제

6월이 오면 거제의 바다는 유독 깊고 푸른빛을 띤다. 눈부신 윤슬이 반짝이는 거제는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쉼을 내어주는 휴양지이지만, 그 이면에는 나라를 지켜낸 숭고한 호국의 역사와 근현대사의 아프고도 찬란한 시간이 묵묵히 새겨져 있다. 임진왜란의 통쾌한 첫 승전보를 울린 바다부터,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상흔을 묵묵히 품어낸 섬, 그리고 비극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묻는 유적지까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려해상의 절경 속에서 치유를 얻고 지난 역사의 무게를 되짚어보는 거제의 세 가지 명소를 걸어보자.

Geoje





01

냉전의 아픔을 넘어 평화의 산 교실로,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 중심부인 고현동 일대에 자리한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이 생생하게 멈춰 있는 공간이다. 1951년부터 설치된 이곳은 인민군 15만 명, 중국군 2만 명 등 최대 17만 3천 명을 수용했던 거대한 역사의 현장이다.

당시 이곳은 단순한 수용 시설을 넘어 반공포로와 친공포로 간의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고 1952년에는 수용소 사령관 돛드 준장이 납치되는 등 그야말로 ‘냉전 시대 이념 갈등의 축소판’이었다. 1983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이곳은 현재 일부 잔존 건물과 막사, 사진, 의복 등 생생한 기록물을 품은 유적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치열했던 이념의 대립과 팍팍했던 수용소의 일상을 재현한 공간들을 걷다 보면,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무게가 가슴 깊이 다가온다. 상흔을 마주하는 일은 쓰라리지만, 역설적으로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단단한 다짐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아픈 역사를 붉은 동백으로 품어낸 마음의 섬, 지심도

비극의 시간을 지나 생명의 치유를 얻고 싶다면 일운면 지세포 동쪽 바다의 지심도로 향해 보자. 하늘에서 내려다본 섬의 모양이 ‘마음 심(心)’자를 닮아 이름 붙여진 이곳은 국내에서 상태가 가장 잘 보존된 동백나무 군락지다. 한 낮에도 어두컴컴한 동백숲 동굴을 걷노라면, 바닥을 수놓은 붉은 꽃송이들이 여행자의 발길을 다정하게 이끈다.

하지만 울창한 숲이 내어주는 그늘 속에는 서늘한 슬픔이 숨어 있다. 조선 현종 때부터 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평화로운 섬은 1936년 주민들이 강제이주하게 되었고, 광복 직전까지 일본군 1개 중대의 요새로 쓰였다. 지금도 섬 곳곳에는 포진지와 탄약고 등 뼈아픈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오랜 기간 국방부 소유였다가 2016년 거제시로 반환된 지심도는 이제 그 아픈 상처를 지워내지 않고 대자연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여름밤의 반딧불이, 황홀한 일몰, 그리고 상처 입은 진지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붉은 동백꽃은 마치 시련을 극복해 낸 선조들의 마음처럼 아름다운 힐링을 선사한다.

- 01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전시관에서 전쟁의 흔적을 돌아보는 시간
- 02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바다와 역사를 함께 마주한 풍경
- 03 푸른 남해 바다를 따라 걸으며 거제의 자연을 느끼는 순간
- 04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는 모습



02



03



04

눈부신 바다 위에 새겨진 승리의 궁지, 옥포대첩기념공원

가슴 시린 근현대사를 돌아보았다면, 이제는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를 만날 차례다. 유서 깊은 옥포만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선을 격파하고 첫 승전보를 올린 역사적인 장소이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 들어서면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솟은 30m 높이의 기념탑이 벅찬 감동을 안겨준다.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신 효충사에서 묵념을 올리고 팔각 정자 ‘옥포루’에 오르면 눈부시게 푸른 옥포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공원에서는 매년 6월 16일을 전후해 옥포대첩기념제전이 성대하게 열린다. 4백여 년 전, 화포 소리와 함성으로 가득했을 이 앞바다는 이제 한없이 평화로운 윤슬만을 반짝인다. 거친 바다 위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숭고한 용기를 상상해 보는 시간. 그 위대한 승리의 기억은 우리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뜨거운 긍지를 불어넣어 준다.

거제에서 배우는 것

거제의 바다는 거창한 말로 애국을 강요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파도 소리 뒤에 숨겨진 옥포의 승리, 지심도의 상처, 포로수용소의 비극을 찬찬히 걷고 매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6월, 동백의 붉은 마음이 깃든 거제의 길을 걷다 보면 아픈 역사는 아물어 새살이 되고, 선조들의 용기는 내일을 살아갈 든든한 위로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 복도 가득 시끌벅적한 장난 소리가 들립니다. 웃음을 머금고 지나가는 찰나, 학생들의 날카로운 단어에 그만 발걸음을 멈춥니다.

"야, 너 진짜 무늬냐? 이걸 왜 몰라?"

"재는 진짜 전형적인 에겐남이네, 완전 테토남 아냐? 극혐이다."

"아, 알빠노, 아님 말고, 진지충처럼 왜 이래?"

친구를 놀리며 킁킁거리는 아이들의 표정에는 악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유행하는 말을 섞어 쓰며 자신이 조금 더 '세 보이거나',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즐거움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특히 요즘은 타인의 고통이나 처지에 대해 무관심을 표현하는 '알빠노'나, 상대의 지적 수준을 비하하는 '무늬', 특정 대상을 성별이나 겉모습으로 규정짓고 비하하는 '에겐남'이나 '테토남' 같은 단어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습니다. 그것이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임을 알면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혹은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그 단어들을 선택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국어 선생님인 저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금 곱씹어 봅니다. 아이들이 재미로 내뱉는 짧은 말 속에는 상대를 향한 '공감의 부재'와 '낮춰 보는 시선'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는 단순히 소리의 조합이 아닙니다. 단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재미와 강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차별적 언어들 살피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문장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야, 너 진짜 무늬냐?
이걸 왜 몰라?

우리말 돋보기

말의 무게를 살피고,
인격의 결을 가꾸는 법

◆ 언어는 사고를 담는 그릇이며, 인격의 거울

무심코 쓰는 'OO충'이나 '에겐남', '테토남' 같은 표현은 특정 집단을 낙인찍고 그 존재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혐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유행어일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거친 말을 내뱉을수록 우리의 생각도 그만큼 거칠고 단순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뜻도 모른 채 남발하는 외래어나 신조어는 우리 마음의 섬세한 결을 표현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 말의 무게를 높이는 단정한 습관

- **내 감정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단어' 찾기** 유행어는 우리의 어휘력을 정체시킵니다. '알빠노'나 '극혐'처럼 상황을 뭉뚱그리는 말 대신, 지금 내 기분이 '서운한지', '당황스러운지', '어색한지'를 정확한 형용사로 표현해 보세요. 어휘의 확장은 곧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 **발화 전 '세 가지' 질문** 사실인가? (확인되지 않은 비하인가), 필요한가? (불필요한 공격성인가), 친절한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가)

◆ 혐오의 꼬리표 대신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기

- **'OO충', '에겐남' 대신** '이름', '직함', 혹은 '친구'라는 다정한 단어를 불러보세요. 특정 집단의 틀에 가두지 않고 한 개인으로 바라볼 때 말의 무게는 정중해집니다.
- **'무늬' 대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네",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처럼 상대의 상황을 배려하는 문장을 선택해 보세요. 비하의 단어 대신 '질문'과 '기다림'의 문장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 **'OO린이' 대신** '입문자', '초보자', '새내기'로 표현합니다. '어린이'는 비하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서툰 상태를 비꼬는 유행어가 아닌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을 응원하는 건강한 우리말을 사용합니다.

마음상담소 여름호 상담기록지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과 양육자의 역할



이달의
상담 주제

초등학생 아이가 숙제나 공부를 스스로 하기보다는 양육자가 여러 번 이야기해야 겨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양육자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됩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부모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령기 이전과 이후의 아이 발달 변화 이해하기

꽃들이 곳곳에 만개한 계절입니다. 예쁜 계절에도 양육자들은 아이와 매일 ‘공부 전쟁’을 치르고 계시지요. “해라”와 “싫다(혹은 나중에)” 사이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는 모든 초등 양육자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막상 내버려두자니 뒤처질까 불안한 그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라기보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습관’ 형성에 가까운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양육자는 관리하고 지적하는 ‘감독관’에서 기다려주고 지도하는 ‘코치’로 역할로 전환할 때 아이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을 돕는 방법

그렇다면 양육자는 어디까지 도와주고,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의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오늘 무엇을 할지”와 “언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다 할 수 있겠어?”라고 물어보며 실현할 수 있는 분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7시에 시작하자”라고 약속했다면, 7시 정각에 바로 소리를 지르기보다 ‘5분 전’ 예고제를 활용해 보십시오. “5분 뒤면 약속한 시각인데, 하던 거 정리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며 아이의 뇌가 준비하고 전환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는 무조건 “이거 해”라고 하기보다 아이에게 선택지를 주십시오. 아이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수학 먼저 할래, 국어 먼저 할래?”, “지금 바로 시작하고 30분 일찍 쉼, 아니면 10분만 더 놀고 정해진 시간에 끝낼래?” 두 번째 아이가 시작할 수 있도록 공부의 단위를 작게 쪼개어 주십시오. 아이가 공부를 미루는

이유는 ‘막막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익힘책 다 풀어”가 아니라 “딱 3문제만 풀고 검사받기”처럼 막막함에 단계를 주어 시작의 문턱을 낮춰주십시오. 일단 시작하면 계속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성취와 경험

마지막으로 보상보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다 마친 계획표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체크 표시하는 등의 시각적 피드백은 아이의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공부했으니, 게임을 해”라는 보상도 좋지만, “오늘 계획한 걸 스스로 다 끝냈네? 기분이 어때?”라며 아이의 유능감을 말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보상보다는 성취감을 시각화해 보심이 자기주도 학습의 힘이 될 것입니다.

가끔은 양육자가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가 끝까지 미루다 숙제를 못 했다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불편한 경험’을 하게 두는 것이지요. 양육자가 미리 다 챙겨주면 아이는 스스로 챙겨야 할 이유를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오늘 계획한 일 중 단 10%라도 스스로 해냈다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책상을 펴고 앉는 모습이 정말 멋지더라”라는 한마디가 아이를 움직이는 큰 동력이 됩니다. 불편한 상황을 겪는 자연적 결과나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자연적 결과는 아이가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은 모든 부모가 바라는 아이들의 학습 태도겠지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조금씩 아이의 습관을 만들어가시는 조금 넉넉한 양육자가 되시길 응원 드려봅니다.

글. 정복순

경상남도가족센터 부모코칭전문가

6

2026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 창원도서관

● 김해도서관

● 마산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미래교육원

● 과학교육원

● 진로교육원

● 안전체험원

● 수확문화관

● 맛봄

일	월	화	수
	1 ● (~29일 까지) 11:00~20:00 / 숲으로 된 성벽(김해시 동네책방) / 오늘, 동네 책방에서(책 구입 인증 행사) ● (~30일 까지) 10:00~15: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 ● (~30일 까지) 10:00~15:00 / 진주체험분원 / 즐겁고 신나는 과학체험	2	3
7	8 ● (~17일 까지/월~수) 10:00~10:00 / 진주체험분원/ 6월 생각쑥쑥 토요과학체험 사전 신청 기간	9	10 ● 14:30 / 가야홀 / 김해도서관 재개관식 ● 17:00 / 1층 라운지 / 노래가 들리는 도서관 ● 18:30 / 가야홀 / 객재식 작가와의 만남 ● (~30일 까지)09:00~18:00 / 김해도서관 / 필사적인 독서 ● (~12/20일 까지)09:00~21:00 / 2층자료실 및 티움 / 티움, 회원 첫걸음을 티우다 ● (~12/20일 까지)09:00~21:00 / 2층자료실 및 티움 / 친구랑 함께 '티움'
14	15	16	17 ● (~7/31일 까지)09:00~18:00 / 김해도서관 / 회원가입하러 온나, 선물 받아가야지!
21	22 ● (~24일 까지)09:30~17:00 / 김해체험분원/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사전신청기간	23	24 ● 15:00 / 책담 1층 해오름 / 영화 상영 <빅(BIG): 슈퍼사이즈 어드벤처>
28	29	30	

목	금	토
4 ● 10:00 /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2026.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전시회	5	6
11 ● 19:00 / 야외공간 / 책 읽는 밤, 버스킹	12 ● 14:00 / 숲으로 된 성벽(김해시 동네책방) / 책방, 하루 체험 '아크릴 명태 도어벨 만들기' ● 19:00 / 야외공간 / 책 읽는 밤, 버스킹	13 ● 14: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책동산> ●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재능기부 힐링 공연 <Trio Prima(트리오 프리마)의 '스크린 너머의 멜로디'(클래식 실내악 공연) ● 9:00~17:00 / 바깥도서관 / 풍선&버블쇼 ● 10:00 / 야외공간 / 풍선&버블쇼 ● 11:00 / 가야홀 / 인형극 <우리 할머니는 허왕후> ● 14:00 / 가야홀 / 김신지 작가와의 만남 ● 14:00 / 1층 로비(가야 아고라) / 인문버스킹 <선물로 여는 김해도서관> ● 15:00 / 1층 세상을봄 / <어린이왕자와 마술사> ● 9:30 / 김해체험분원 / 6월 가족나들이 토요 생태체험 ● 9:30~16:30 /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 토닥토닥발명교실<학생반>, <가족메이커반> ● 10:00~12:00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 누구나 안전체험 프로그램 <교통·생활 안전>
18	19	20 ● 14:0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손영옥 작가 <(미술사)아무래도 그림을 사야겠습니다> ● 9:40~16:00 / 진주체험분원/ 6월 생각쑥쑥 토요과학체험 ● 10:00 / 경남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 가족단위 영양식생활체험 <키 쑥쑥, 몸짱 만들기>
25 ● 14:00 / 가야홀 / 미술관, 인간을 읽는 공간	26	27 ● 10:00 / 책담 2층 책벗 / VR토론동아리 <VR 포럼> ● 11:00 / 책담 1층 꿈뜨락 / 동화인형극 <환경인형극 '안녕 펭구'> ● 10:00 / 가야홀 / 김신지 작가와의 만남 ● 14:00 / 김해박물관 / 탐방 <가야사 문화 유적 알기> ● 14:00 / 3층 무학전당 / 토요인문특강 도슨트 <'정우철'의 내가 사랑한 화가들> ● 10:00~12:00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 누구나 안전체험 프로그램 <교통·생활 안전>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사항

안내사항

• 지면의 한계로 일부 행사만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공도서관 예약

통합예약

과학교육원 운영 안내

(6월 전체 운영/월요일, 공휴일 휴관) 10:00~17:00 / 자유관람

창원도서관

(6월 10일 이후 매주 토 운영) 11:00 / 책담 1층 다온누리(해오름 옆) / 체험 <AR 모래놀이>
(6월 10일 매주 토 운영) 14:00 / 책담 2층 책고리 / 체험 <VR 스포츠 체험, 자연 힐링 체험>
(6월 10일 매주 토 운영)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로봇 공연>

50

51

전자책 &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안내

서비스 기간: 2026년 4월 30일(목) ~ 2027년 2월 28일(일)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이용 방법

- 1 아이톡톡 전용 브라우저(네이버 웨일) 설치 및 접속
- 2 경남교육청 아이톡톡 계정으로 학교/기관 로그인 후
뉴탭에서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아이콘 클릭
- 3 읽고 싶은 도서 선택 후 책 읽기 클릭(북플레이어 설치)